전주 이동형 갤러리 '꽃심' 내달 운영

전주문화재단, 20일부터 24일까지 참여 작가 모집
확정되면 전주역 광장 등 다중집합장소 등에 작품 전시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전주시 곳곳을 문화로 채워나갈 이동형 갤러리가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주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 운영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참여 작가를 전주문화재단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시는 이동형 갤러리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척박한 여건으로 아트마켓 진입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와 작품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미술관 문턱을 낮춰 다소 멀게 느껴지는 예술 작품들을 생활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작가 신청자격은 공모시작일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예술작가로서 3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는 작가로, 이동형 갤러리 규모를 고려해 전시 가능한 작품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작가에게는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작가별 2주~3주간의 무료대관 전시기회가 제공되며, 전시기간 중 작품이 송 및 설치비, 운영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되며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시는 참여작가가 확정되면 오는 4월부터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을 전주역 광장과 전주 역 앞 첫 마중길, 고속버스터미널, 한옥마을, 팔복예술공장 등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중집합장소와 미술관 등이 멀어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쉬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동형전시장이 운영되면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되는 구도심 등 전주 곳곳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전주의 문화예술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줄 전주 이동형 갤러리 참여작가 공모에 보다 창의적이고 참신한 지역 시각예술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형 갤러리 '꽃심' 운영 및 참여 작가 모집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jfct.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3-922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젊은 국악인들 모여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협연의 밤'
고교 · 대학생 연주자 모집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혁악단은 '협연의 밤' 공연무대에 함께할 국악인을 공개모집한다.

국악원은 협연의 밥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을 계승·발전시킬 젊은 국악인재를 발굴하여 전문연주단과의 협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전라도 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전국 국악 관련 전공 재학을 대상으로, 성악·기악·타악 부문에 걸쳐 청소년 및 대학생을 각 5~6명(팀)씩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이며, 실기심사(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실기심사는 4월 19일 진행되며, 4월 21일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차세대 국악인재들은 전라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과 한 무대에 서게 된다. 올해 '제14회 청소년 협연의 밤'과 '제22회 대학생 협연의 밤'은 오는 6월 1일과 2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접수

전주문화재단, 1~3차에 걸쳐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생활 속 문화향유와 건강한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2017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마추어 동호회에게는 활동 공간·교육 강사·교류 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격은 전주문화재단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로 등록한 단체에 한하며, 전주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3개월 이상 활동한 아마추어 동호회이면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1차 모집기간은 17~24일며,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를 선정해 1개 단체 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간접 지원한다. 이어 제2차 공모는 오는 5월, 제3차 공모는 8월에 진행 할 예정이다.

올해는 90여개 단체에게 총1억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재단에는 총151단체(2,131명)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9개 단체에게 총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공모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소설이 영화화 된다면?"

전북소설가협회
18일 세미나 개최

정영신 회장

전북소설가협회(회장 정영신)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북문학관 대강당에서 천성래 작가 겸 영화감독과 함께 '제1회 소설 낭독회'와 '소설의 영화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 행사는 전북소설 향유 공간의 새봄맞이 단장과 다양한 소설 관련 문화행사의 참신한 스토리텔링 모색으로 소설작품이 영화나 시나리오로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방안을 토론하게 된다.

1부 행사에서는 대하소설 '국경의 아침'과 영화 '소록도'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천성래 작가 겸 영화감독이 원작 소설을 영화화 한 '밀양'과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장르적 특징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소설의 영화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부에서는 전북소설가협회 회원들이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 낭독회'가, 3부에는 2004~2014년간 열악했던 전북소설가협회 발전을 위해 기틀을 닦아놓은 김상휘 전북소설가협회 명예회장(제6대~제10대)에게 주어지는 '특별상 시상'이 열릴 예정이다.

정영신 회장은 "호흡이 긴 '소설 낭독회'를 장르 간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발전시켜 소설의 대중화에 앞장 서겠다"며 "소설이 살아 있는 전북·소설적 감성이 흐르는 전북도민 등 문학적 힐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4월·7월·9월에 주제가 있는 '소설세미나'와 '소설 낭독회', '문학기행'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회원 간의 단합과 창작활동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김성욱 '한옥에 뜬 달-사랑하면 만나리'

핸디코트에 수묵채색 표현기법을 구사하는 김성욱 작가의 개인전이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 작가는 '한옥에 뜬 달, 사랑하면 만나리' 전에서 장수와 영물을 뜻하는 학과 달 그리고 전주하면 떠오르는 한옥지붕을 소재로 작가와 가족·친구들의 일상과 가치관을 담아낸다.작가는 작품에서 작가 자신과 가족들 모습을 학에 투영해 낸다. 그림 속의 마주한 학들은 같이 있음에, 같은 곳을 바라봄에 행복한 날개 짓을 한다. 이와 함께 천년 숨결을 간직한 한옥의 고즈넉한 곡선은 마치 학이 날개 짓하는 듯 율동미를 자아낸다.

작가는 이 같은 행복한 동행의 날개 짓을 빌려 희망·배웅·이별·마중·포옹·사랑 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전시는 4월 11일까지 열린다. /정해은 기자

익산교육지원청, 어머니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오디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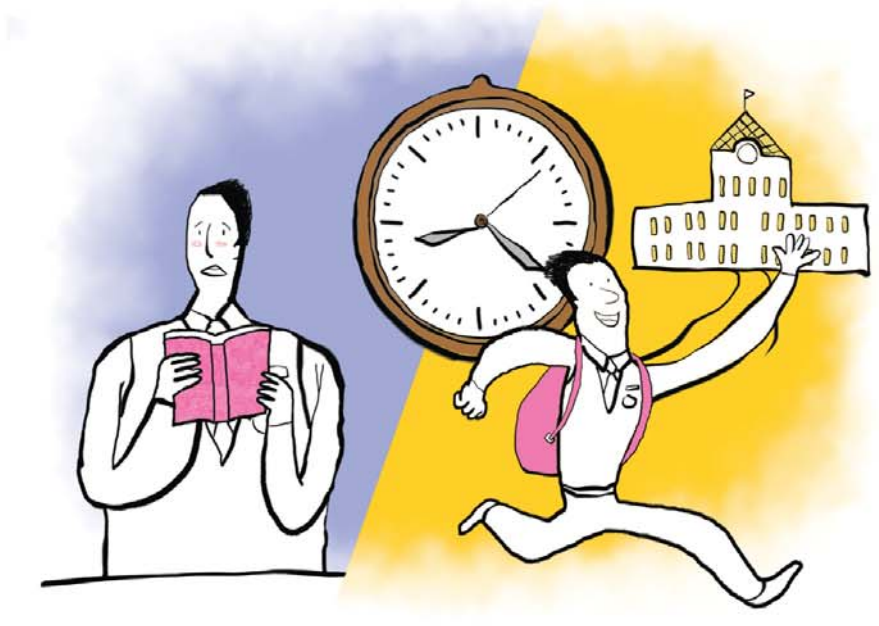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29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제10기 어머니합창단(솜리맘스코러스) 신입 단원 모집을 위한 오디션을 실시한다.

지난 해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던 솜리맘스코러스는 합창활동을 통해 학부모 정서함양과 문화적 교육공동체 조성,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갖고 삶의 활력을 얻어 가정과 자녀와 사회에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동아리 단체. 솜리맘스코러스는 익산지역 학부모 중 음악애호가 또는 성악에 소질이 있거나 합창활동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오디션 참가가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